

생태조사업과 협회의 역할

최 병 진¹⁾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

생태조사업이란 무엇인가?

생태학 관련 인력의 취업 및 관련 자격증으로는 생물분류기사(동물, 식물) 생태복원 기사와 환경기사(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등이 있다.

이중에서 분류학과 생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 가능한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생태조사를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2종 등록사업체에 취업하는 길이 있다.

생태조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자원조사, 생태경관 모니터링조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모니터링 등 그 적용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생태조사 분야보다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될수록 생태조사와 분류학의 중요성은 더 해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생태조사를 담당하는 생태조사업체를 환경부에서는 생태조사 직업분류군을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태조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하청업체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태조사업과 생태복원업이 필요한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현 생태조사업의 문제점과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 생태조사업의 문제점

시장의 한계로 인한 업체의 난립

2014년 10월 30일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1종의 대행자 등록 업체는 331개이며, 환경영향평가 2종 등록 업체는 41개 업체로 약 12.4%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단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00,000,000~150,000,000원 정도이며, 생태조사분야의 예산은 10,000,000~20,000,000원 정도로 전체 영향평가 비용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숫자상으로 331개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2종 환경영향평가의 시장규모가 33개 정도의 업체는 영유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밝은 전망만은 아니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331개의 환경영향평가 업체 중에서 100여개 정도는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100여개의 업체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에 부수적인 부서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대기, 수질, 폐기물, 소

1)Ecological Survey Company and KACN

2)CHOI, Byung Jin, Korea Natural Environmental Institute Co., Ltd., E-mail: batmanchoibj@gmail.com

음·진동, 토양 및 자연환경에 등록된 인원들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100여개의 업체는 그 존망마저도 의심 가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계산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발주되는 생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조사업체의 적정숫자는 10개에서 최대 20여개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인력은 총 10명이 필요하며, 2종 환경영향평가(생태조사업)의 경우 6명의 기술인력 필요하므로 인력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사에서 발주되는 생태조사업만으로 10여개의 생태조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조직을 운영해나가기에 무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 생태조사업이 독립하게 되면, 현행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들어가 있는 자연환경분야 2명(기술사급, 기사급)을 등록기준에서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조사와 자연자원보전분야는 독립법인이 생태조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책임하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의 결여

현재의 생태조사업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생물분류기사이며, 생물분류기사는 식물분야, 동물분야의 두가지 기사만으로 구별되어져 있다.

환경부나 협회에서 자연자원을 시행할 때 통상적으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육상곤충, 저서성무척추동물, 부착조류, 해산어류, 어란 및 치자어, 해조류,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조간대조사, 저서성 무척추동물조사로 나누어서하는데 현재의 생물분류기사는 동물과 식물로만 나누어져 있어서 그 전문성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 동·식물분류기사에 특정분야를 넣어주어야 할 것이다.

동물(포유류), 동물(조류), 동물(양서·파충류), 동물(어류), 동물(곤충), 식물(선대식물), 식물(관속식물), 식물(해조류), 식물(식물플랑크톤), 동물(저서성무척추동물), 동물(해양부유생물), 동물(조간대, 조하대), 동물(치자어)으로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조사업 보수 및 검정기관으로서의 본 협회의 역할

현재는 생태조사업 인력등록과 관리가 환경부 등록 사단법인인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에 주로 속해있으며, 생태조사와 관련된 전공 분야는 자연과학대학, 산림과학대학 등으로 각 대학에서도 독자적인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산림자원학과 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 전공자들의 전문가 집단인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에서 생태조사업의 인력관리와 보수교육 등을 맡아야 할 것이다.

본 협회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법정단체로서 정관에 환경부를 대행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생태조사업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아야 할 것이다.

분류·생태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해보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들쥐라는 국명을 가진 동물이 존재하고 학명도 생쥐나 멧밭쥐의 학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생태조사의 부실한 것이 언론보도에 된 것처럼 생태조사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체계적인 정비는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야외조사의 초보자가 보기에는 노랑부리백로와 중백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박쥐류의 경우 포유동물을 전공한 사

람에게도 동정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외부형태는 노랑부리백로와 증백로가 비슷하지만 그들의 생태적 가치와 보고서에서의 중요성은 사업의 진행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분류·생태 전공자의 양성과 생물분류기사 취득

생태조사업은 분류·생태전공자의 진로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련 교수님과 학회에서는 생태조사업의 발전과 관련 전공자의 양성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생물분류기사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진학을 통해서 분류 생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조사업은 환경공학이나 토목공학의 공학적인 소양보다는 조사 자료에 대한 전문

성과 학자적 양심이 필요하며, 보전방안도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자연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많기 때문에 4대강사업과 같은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학자적 양심과 자연과학적 양심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보수교육의 필요성

분류학과 생태학의 경우 야외조사를 나가지 않거나 표본을 자주 접하지 않으면 야외 조사의 감과 능력이 떨어지고 최신의 연구 기법과 변화무상하게 변해가는 자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필수이다.

다양한 분류군을 전공한 본 협회야 말로 생태조사업체의 보수교육과 인력관리에 최적의 단체이다.

참고자료 - 2014년 10월 30일 현재 생태조사업 현황

No	회 사 명	대 표	주 소
1	(주)생태기술연구소	신재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9-24 3층
2	(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심중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921호
3	(주)엔탑엔지니어링	신수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릉테크노타운 15차 19층 1902호
4	(주)생태조사단	원두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704호
5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김황용 박영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복원로 1389
6	(주)소운이엔시	심설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304호 (관양동,금강센터리움아이티타워 1304~1305호)
7	(주)에코닉스	김재주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74-1(묵동, 정암빌딩 3층)
8	(주)녹인	유승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39-6, 202(삼전동)
9	(주)자연생태연구소	김연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센터리움 B-805
10	(주)미강생태연구원	정홍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201호(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11	(주)참생태연구소	백현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C-906
12	(주)미주생태연구원	제갈재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석호로 44-1(이동, 봉헌빌딩 2층)
13	지오이앤이	한지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411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 타워 1차)

No	회 사 명	대 표	주 소
14	(주)태연	지숙행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53-1(3층)
15	(주)생태와환경	이평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302-508(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16	(주)송인엔지니어링	박정남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7, 101-207(평택동, 롯데인벤스스카이)
17	(주)신성엔지니어링	정찬섭 정태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4번지 2층
18	(주)동림피엔디	이인재 박민대 이석우 김용태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2(문정동)
19	(주)에코이엔지	최한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5길 24, 1층(신사동)
20	(주)우신이엔씨	이광석 최재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609호, 610호
21	(주)에일	윤성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07, 303호(금곡동, 강남상가)
22	(주)아태생태환경	박은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1길 47
2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우석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100(용현동253)인하대학교
24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홍재상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용현동, 인하대학교해양학과)
25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	최병진	충북 제천시 내도로40길 7(화산동)
26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김맹기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39-5 창국빌딩 5층
27	(주)메이텍엔지니어링	김대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우동), 센텀티타워 1101호, 1102호
28	(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손민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85-1번지
29	(주)누리환경기술센터	차성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61-47번지 5층
30	(주)대성기술단	이영형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4
31	W&S자연환경평가연구소	신동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5길 7 (해운동) 대일빌딩 3층
32	모다인(주)	양예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23, 701(대연동, 태강플라자)
33	(주)자연환경복원연구원	장인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 오투기빌딩 503호
34	지구생태환경연구소	박성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6(장대동) 프라이م빌딩 402호
35	주식회사 생태평가연구원	권동주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26번길 17
36	(주)에코지오	김상준	광주광역시 북구 지동차로 68, 4층 (신안동)
37	(주)에코이엔비	좌종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4길 11, 3층(노형동)
38	(주)에스이엔씨	나영희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51번길 6-2 (금호동)
39	(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황성일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2길18-14,2층(우두리)
40	(주)에이피	김종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안남로 115(신암동, 동대구빌딩)
41	다올해양생태연구소	박성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47길 3-14(범물동, 1층)